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공공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12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공동기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문) 다함께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년, 해방과 분단 65년, 6.25 전쟁 60년, 6.15 선언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8.15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올해는 일제의 찌꺼기를 완전히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 간 통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전환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동안 남북이 함께 쌓아온 화해와 협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또 다시 비방과 불신, 적대와 대결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분단에 이어 대결과 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세워져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지대가 되고 한반도와 전 세계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립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 교류로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기뻐했던 6.15 통일시대가 재현되고, 더욱 활짝 열려져 남북 삼천리에 통일의 열기가 도도히 굽이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남북 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남북 간의 적대의식과 대결의식을 극복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온 땅에 평화의 기운이 퍼져 나가도록, 남북 교회가 한반도를 막고 있는 장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화해와 평화, 통일의 그 날을 간구하는 사명을 교회가 다함으로써,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조선그리스도교련맹)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121:5,6 인도자
♠ 교 독 문 102. 나라사랑(4)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박아름 선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38(통364). 내 주를 가까이 다함께
성경봉독 I. 요1:9-13 고정환 학생
 II. 애5:19-22 박두석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씩 I. 광복군(光復群) 김재흥 목사
 II.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소서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찬 송 586(통521). 어느 민족 누구게나 다함께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거름삼아 더욱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악몽 같은 현실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며 주님을 ‘무능하다’ 원망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원망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되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앞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뒤따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사랑은 혼돈을 평화로 바꾼다

1975년, 온두라스 테구치갈파에 있는 슈야파 슬럼지역의 라르슈 공동체는 클라우디아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일곱 살이었고 음침하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보호시설에서 즐곤 살아왔다. 클라우디아는 시각장애인이었으며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두려워했고 내면은 고통과 고뇌로 가득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자폐증 환자였다.

공동체에 왔을 때 그녀는 극심하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익숙하던 보호시설을 떠나 낯선 곳에 왔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고, 안전을 보장해주던 확실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크게 불안을 느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꼈다. 밤낮 소리를 질러댔으며 배설물을 벽에 발라댔다. 완전히 미쳐 보였다. 불안감에 압도되어 그녀의 인간성은 완전히 파괴된 듯 보였다.

클라우디아는 도저히 다른 세계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끔직한 광분의 세계 속에서 갇혀 지냈다. 우리는 라르슈에서의 치료 체험과 정신과의사와 심리학자의 도움을 통해 혼돈, 즉 ‘광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광분은 끝없는 울부짖음ियो 하나의 질병이다. 너무나 큰 고통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찾게 되는 하나의 도피 방법이다. 그러나 그러한 무질서함도 치료의 길을 찾기만 한다면 바로잡을 수 있다.

클라우디아가 슈야파에 오고 20년이 지난 후,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 공동체를 다시 방문했다. 그녀는 매우 차분했다. 그녀는 28살이 되었다. 여전히 시각장애를 가진 자폐증 환자였지만 평화로웠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결코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자주 노래를 불렀으며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점심 식사 때 그녀의 맞은편에 앉게 되었다. 그녀에게 물었다. “클라우디아,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예, 장(바니에의 성)”, 그녀가 대답했다. “클라우디아, 무엇 때문에 그리도 행복하니?” 그녀의 대답은 단순하고 분명했다. “디오스”. 하나님 때문에. 그 공동체의 리더인 나디앤에게 그 말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나디앤은 말했다. “그것이 클라우디아의 비밀이에요.”

외로움과 불안정함은 클라우디아에게 광기어린 혼돈을 가져왔다. 그러나

공동체와 사랑과 우정은 그녀에게 내적인 평화를 가져왔다. 혼돈에서 내적인 평화로, 자기 증오에서 자기 신뢰로의 변화는 클라우디아 자신이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찾아온 변화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다음 일곱 가지의 사랑이 필요하다.

1. 드러내기

사랑이 시작되며 처음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드러내기’다. 마치 엄마와 아빠가 자기 자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자녀에게 드러내 보여주듯이 클라우디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치료사들은 클라우디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그녀에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를 온화하게 대함으로 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에게 그만이 가진 독특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며 그가 특별한 존재이며 관심받기에 충분한 존재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온화하고 열린 자세로 사람을 쳐다본다거나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상대를 향한 존중감이 가득 찬 태도는 그 상대방의 가치가 분노, 증오, 광기에 가려져 있다고 해도 그 가치를 드러내게 돼있다.

가치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 그 치유적 계시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클라우디아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7년 동안 그녀는 외로움과 애정결핍,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 속에서 지냈다. 아무도 그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댔다.

귀여운 꼬마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미친’듯 보이는 클라우디아의 숨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녀 또한 따뜻한 마음을 지녔으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 속에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핵심가치며, 라르슈 공동체의 핵심가치다. 그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자꾸 결점만을 보아냄으로써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생명을 제한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에 대한 신뢰를 드러낼 때 그의 숨겨진 아름다움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요 그 아름다움은 그 무엇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다.

내 작은 어깨로

전병호

우리 동네 기타 공장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아저씨가 / 두리번거리다가
내 옆 빈 자리에 와 앉았다

얼마 전 기계에
손가락이 잘렸다는 그 아저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 옷자락에 손을 감추고

몹시 피곤한지 / 눈을 감더니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뜨거운 눈물과 함께 우리나라 땅에 묻었을
새끼손가락 마디

아저씨는 지금 / 바다 건너 먼 고향집을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

내 작은 어깨로 / 아저씨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받쳐 주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 윤정덕 구성실 김경연 김신옥 김용길 최영혜 이해동
 맹은선 안정숙 윤미경 윤수진 정복순 박용진 김용원 김혜영 한상경
 이광용 형인순 무명

월정헌금 : 고속이 김현영 정원석 박옥순 이현순 전영자 박상규
 박인혁 장석원 권미정 박은정

감사헌금 :

윤정덕 구성실 박창운 허정윤 박병구 김정애 김미영 윤석철 장혜숙
 전영규 김경수 김기석 김희우 한완식 임정자 김정숙 조병주 이재문
 김필순 백묘현 최종훈 김금하 김재흥 최희영 배근수 김금순 전 응
 김명순 이교영 강순배 박범희 박미영 한학수 백혜숙 정영선 박성실
 정두리 배삼순 권호진 객새롬 신진식 오현정 무명
 수양회 4 조 - 정현주 백묘현 김필순 박성실 박병구 홍순구 조항미
 김수진 임원민 김세진 이명희 송 샘 고은숙 권하영 최연우 조해인
 수양회 9 조 - 윤성종 정복순 김영순 배삼순 방문성 정영선 최영돈
 이은정 김승현 최희영 전예원 황지현 이주희
 수양회 5 조 - 전충길 송임희 임창선 조병주 허정윤 김준호 김근종
 객권희 김수진 김정우 안경아 이창석 안 훈 강미선 박미선 이성익
 하주형 김주희

녹색꿈헌금 : 임창선 황경순 김미순 김순복 임고운 이건식 신영신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 혜 숙	박 성 실	심	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최 경 미		
가 나 안	문 영 혜	이 명 희		
갈 릴 리	안 정 숙	진 정 숙		
베 다 니	박 흥 재	객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렛	정 영 선	백 혜 숙		
갈 라 디 아	유 경 순	김 수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평화통일기도주일** : 오늘은 남북의 교회가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2.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3. **수요집회** : 8월 수요집회는 ‘그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손성현 전도사가 인도합니다. (첫째 시간 : 그 사람 ‘본회퍼’)
4. **수양회 평가회** : 수양회 평가를 위한 준비위원 회의가 오후 3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5. **신앙실천** : 수양회 기간 중 나누어드린 ‘기도집’을 통해 아침저녁으로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갈라디아 속 (다음 주 : 고린도 속)

* 설거지 봉사 : 전충길 유지은 남창모 (다음 주 : 허호범 박성실 이준하)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선교회	말씀 : 손성현 전도사
	기도 : 윤수진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윤 윤 선생	이승철 학생
	김기석 목사	한상익 장로	유경순 권사

8월	영점위원	한상익 허호범 박두석 박성실 이건화 정경례
	헌금위원	한완식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